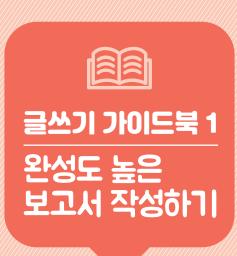


글쓰기 가이드북 1

완성도 높은 보고서 작성하기





Contents



글쓰기 가이드북 1

완성도 높은 보고서 작성하기

1. A+ 받는 보고서 쓰기, 나도 할 수 있어요!	3
2. 기억하면 득이 되는 준비과정	4
3. 유형별 작성 전략	
1) 깔끔하고 논리적인 글쓰기	18
2) 형식을 갖춘 실험 보고서 작성하기 ————	22
3) 쉽게 작성하는 감상문	27
4. 보고서 작성 시, 꼭 챙길 list	31
5.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32
연습문제	33

1. A+ 받는 보고서 쓰기, 나도 할 수 있어요!

보고서는 특정 주제에 관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여 보고하는 글이다. 대학에서 보고서는 성적을 결정짓는 과제로, 학생의 역량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도구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높고 가독성이 좋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완성도 높은 보고서는 준비 없이 이뤄지지 않는다. 과제가 힘들다는 이들의 공통점은 계획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한다는 데에 있다. 하얀 창에 깜박이는 커서를 보고 있자면 머릿속도 덩달아 백지가 된다. 혹은 떠오르는 문장들을 두서없이 작성하다 보면 이야기가 샛길로 빠지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전략을 익혀야 한다. 글을 쓰는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요를 작성하면 글을 쓰면서, 퇴고 시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점검하는 일까지 해내야만 한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전공 계열과 과제의 성격에 따라 형식의 차이가 있지만 '제목-서론-본론-결론-참고문헌'의 기본 구성을 유지한다. 이를 먼저 파악하자.

이후 각 유형에 맞는 세부 작성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논리적 글쓰기, 실험 보고서, 감상문이 그것이 다. 보고서를 쓰는 목적에 따라 유효한 글쓰기 방법을 확인하고 적용해 보자.

2. 기억하면 특이 되는 준비과정

보고서를 처음 작성하려면 막막한 경우가 있다. 좀 더 쉽게 작성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된다.



① 출제 의도 파악하기

보고서 작성 전 가장 먼저 과제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후 의도에 부합하는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A'를 묻는질문에 'B'라고 답한다면 부분 점수조차 받기 어렵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일기를 쓸 때, 친구에게 간단한 메모를 남길 때를 떠올려보자. 글을 읽는 사람이 나와 타인으로 나뉘는 것만으 로도 우리는 글 쓰는 태도, 문장 구성을 달리 한다.

보고서도 이와 같다. 내가 써야 하는 글의 지향점을 기억하자. 설득을 필요로 하는지,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지, 감상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보고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주제 설정이 용이하다. 주제에 따라 자료 수집의 범위가 달라지고 보고서의 구성도 달라진다.

무엇을 쓸 것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글의 구성과 논지가 산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제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tip!

출제된 큰 주제 안에서 각자 자유로운 세부 주제를 정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식상한 주제는 피하고 새 로운 시각을 통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창의성 확보를 위해 큰 주제에서 벗어나진 않았나 재확인도 필수적으로 하자.

② 참고자료 검색하기

보고서가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는 자료 수집과 정리가 충실한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선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으로 정확한 자료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보고서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다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믿을 만한 정보와 자료를 구별해야 한다.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 자료를 검색한다.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지식인,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한 자료는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출처가 있더라도 그내용의 신뢰도를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권위 있는 문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자료나 도표 등의 수치를 나타내는 통계 자료는 공인된 사이트에서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험 보고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작성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야 한다. 덧붙여 글쓰기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자.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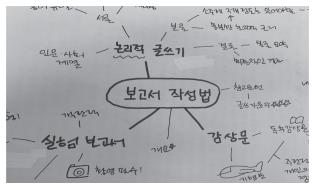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 인하면 홈페이지 하단에서 RISS, 국회도서관, 구글 학술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각 홈페이지에서 전문 자료를 구할 수 있다.

🗐 알아두기

'마인드맵핑'을 이용해 생각을 전개해보자. 마인드맵핑이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표시해 나가는 것이다. 생각의 연결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브레인스토밍 도구이며 학습기법이다. 보고서의 주제를 확인하고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할 때 활용하자. 글의 방향성을 확립하거나 글의 재료들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

반드시 글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림이나 기호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간단한 단어나 문장으로 쭉 이어가다 보면 거미줄이나 기차, 나무 등 다양한 모양으로 완성된다. 어떤 형태여도 좋다. 자연스럽게 확장한 생각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흩어진 것을 새로 그룹화하며 보고서에 요구되는 정보로 구성하자.

[예시]



③ 개요서 작성하기

개요서는 글의 설계도와 같다. 설계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해야만 재료를 모으고 원하는 곳에 배치하여 건물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글도마찬가지이다. 간단하게라도 개요를 작성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머릿속에 개요를 작성하면 글을 쓰다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쓰고 있는지확인하기 어려워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했을 경우 이를 체크하기 힘들다.

개요는 자기 글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면 된다. 문장형이나 명사형 어떤 형태로 완결되어도 괜찮다. 다만 일관되게 작성했을 때 시각적 확인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보고서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전체 틀을 작성하면 된다.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개요는 성공적인 보고서를 쓰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먼저 서론이란 글의 도입이다. 흥미 유발, 문제 제기,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론은 글의 중심부로, 보통 3-5개의 소주제로 구성된다. 개요에서는 소주제를 간략하게 서술해둔다. 활용할 자료를 함께 메모하는 것이 좋다.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본론의 내용 요약, 최종 결론, 도출한 결과 정리, 고찰 등이 들어가야 한다. 자칫 결론이 부실해지면 글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 개요

- 1. 서론
- 흥미 유발, 문제 제기,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의 필요성 등

2. 본론

- 논리적인 전개를 위한 내용 구성
 - 2.1. 소주제 1(소주제는 큰 주제로 나아가도록 긴밀성 유지)
 - 논리적 근거 제시
 - 2.2. 소주제 2
 - 논리적 근거 제시
 - 2.3. 소주제 3
 - 논리적 근거 제시

3. 결론

- 본론의 내용 요약. 최종 결론. 도출한 결과 정리. 고찰 등



tip!

개요도 수정할 수 있다. 한번에 완료하려고 생각하 지 말자. 글을 쓰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개요를 바꾸는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수정 후. 출제 의도와 주제 수렴도를 확인하여 개요의 완성도 를 확인하자.

🗐 알아두기

목차 구성은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절과 장으로 배분하여 논의의 균형을 맞추고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수문자식, 숫자식, 장절식 등이 있다.

- [수문자식] 숫자+문자 (로마 숫자, 한글, 알파벳 등의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사용)
- [숫자식] 숫자 (숫자를 부호화, 보고서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가능, 유럽의 학위 논문, 학술논문에 주로 사용)
- [장절식] 장+절 (절의 아래는 수문자 사용, 장문이지만 보고서의 구성이 복잡하지 않을 때 사용)

④ 초고 작성하기

〈표지〉

표지는 보고서의 얼굴이다. 대학에서 제출하는 과제로서의 보고서라면, 표지의 내용은 '제목-과목명-담당교수-제출일-소속-학번-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보고서의 분량이 많지 않을 경우 목차를 표지에기재할 수도 있다.

[예시]

포스트 코로나시대 주식시장

: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목차 1. 2. 2.1. 2.2. 3. 4.

자 목 명 : 이 이 이 이 이 대 당교수 : 이 이 교수 님 제출일: 이 년 이월 이일 소 속 :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를 : 이 이 이 이 이 이

〈목차〉

분량이 아주 짧지 않다면 목차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목차를 소제목, 페이지와 함께 제시하면 보고서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짧 은 분량의 보고서도 목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목차를 통 해 보고서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

목 차					
1. 서론 1P					
2. 본 론					
2.1. 주식시장의 정의2P					
2.2. 주식시장의 구조3P					
2.2.1. 발행시장					
2.2.2. 유통시장					
2.3. 주식시장의 기능13P					
2.4. 한국 주식시장15P					
2.4. 27 77/0					
3. 결론16P					
4. 나의 생각17P					
5. 참고 문헌					

〈본문〉

글을 쓸 때는 논리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약속된 형태 안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쓴다. 서론과 결론은 머리말과 맺음말, 들어가는 말, 나오는 말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본론은 몇 개의 소제목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론이라는 말은 굳이 쓸 필요는 없다.

본문은 개요서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개요의 목차는 각 문단의 지향점이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개요를 활용하면 주제와 어긋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개개의 문단이 모여 하나의 글이 완성된다. 보고서의 완성도가 각 문단의 완성도와 비례하는 것이다. 한 개의 문단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각 문단은 서로 관여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비약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알아두기

문단이란? 문단은 여러 문장이 모여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 내는 것이다. 작성 시 크기와 내용, 각 문단 간의 긴밀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문단의 시작은 '들여쓰기', 문단 나누기는 '행 바 꿈'하여 정리한다. 형식이 일정하게 구성되어야 논리를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자. 글의 입구이다. 낯선 곳에 도착한 독자에게 글 의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부분인 것이다. 글을 읽는 이를 맞이하고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제 를 설명한다. 여기에 흥미로운 소개가 더해진다면 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본론은 글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 양만 많아진다고 본론일 수는 없다. 논리 적인 전개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쓴 것은 아닌지, 객관성을 확보했는지, 문단 크기는 적절한지 등을 계속 상기하면서 보 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집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출처를 밝혀 글 쓰기 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하자.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본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애쓰 느라 결론을 작성할 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 도록 앞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며 마무리하 도록 하자.



tip!

보고서 쓰기에 바람직한 글씨 형태는 교수자가 제 시하지 않는 한 자유롭다.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사용 되는 글씨체인 신명조체를 사용한다. 글씨 크기는 과 제 제시 때 특별히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10pt를 선 택한다. 줄 간격이나 여백 등은 문서 작성의 기본 형 식을 따른다.

⑤ 퇴고하기

작성된 초고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보완할 내용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는지, 오탈 자는 없는지, 출처는 명확하게 표기되었는지 등의 사항을 확인한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보고서에서 인용을 밝혀 주석으로 표기하는 일과 참고문헌을 정리해서 표기하는 일은 보고서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글쓰기 윤리에 따라 자 신의 입장이 아니거나 다른 곳에서 인용해 오는 경우, 인용 출처를 반드 시 표기하고 참고한 자료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은 글의 객관성을 떨어 트리는 주관적인 표현이다.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인용은 가능한 짧게 하고, 원문을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다. 직접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에 단어, 철자는 물론 구두점까지 원문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원칙이다. 인용한 문장의 앞뒤에 큰따옴표("")를 쓴다. 간접 인용은 작성자의 문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인용한 글이 자신의 문장 안에 녹아드는 셈이다. 주로 내용을 요약해 싣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부호 없이 출처를 밝히면 된다.

원문: 사투르누스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와 동일시된다.

[직접 인용의 사례]

"사투르누스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와 동일시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간접 인용의 사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 사투르누스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 와 동일시된다"고 한다.

참고문헌은 보고서를 다 쓴 후에 참고한 책이나 논문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 것이다. 참고문헌의 표기는 저자명, 출판연도, 도서명, 출판사명 순으로 한다.

외국어 문헌이 있을 경우, 한글 문헌과 섞어 쓰지 않는다. 한글 문헌을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나열하고 외국어 문헌의 저자 이름의 알 파벳순으로 기재한다.

[참고문헌 표기방법]

- 도서(단행본): 저자명, 출판년도, 『도서명』, 출판사.
- 논문(학술지): 저자, 발행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처, 논문 수록 쪽수.
- 논문(학위): 저자, 발행년도, 「논문제목」, 학위논문사항.
- 기사(신문기사): 기자, 「기사제목」, 『신문사』, 발행연월일, 게재면.
- 기사(인터넷 기사): 기자, 「기사제목」, 『신문사』, 작성연월일, 링크주소(접속연월일).
- 웹사이트: 웹페이지명(게시글 이름), 사이트명, 게시연월일, URL(접속연월일).



tip!

참고문헌 작성 시 문자표(단축키: Ctrl+F10)를 활 용할 수 있다.

3. 유형별 작성 전략

1) 깔끔하고 논리적인 글쓰기 🏈

논리적 글쓰기란 주로 **인문사회계열**에서 작성되는 보고서이다. 학술 논문 형식을 따르며 순수한 학술적 연구 내용을 다룬다. 따라서 다른 보 고서에 비해 방대한 문헌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가 많을수록 보고서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수집한 자료로 독창적인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제대로 된 자료조사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문헌 자료의 적절한 인용이 필요하다. 인용 시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후에는 보고서의 형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한다. 먼저, 정해진 제출 형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해진 것이 없다면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갖추는 것이 좋다. 논리적 글쓰기의 개요는 '개요서 작성하기'를 참고하고,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주제어, 연구의 필요성, 기존의 연구의 한계 등을 설명한다. 보고서의 서론만 읽어도 작성자의 의도와 보고서의 진행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서론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자.

[서론 예문1]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음성 분석을 통해 통사론과 음 운론의 접합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한국어의 이중 주어 구문은 아래의 (1)과 같이 한국어 문장에 주격을 부여하는 표지가 두 개 이상 출현한 것을 말한다.

○ 논문의 목적은 '이 논문의 목적은 -에 있다'와 같은 형식을 사용해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작성한다. 목적에서 연구 내용을 집약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장이 장황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서론 예문2]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통사론적 관점과 (중략) 초점 표지와 화제 표지가 NP1과 결합하는 조사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점을 음성학적 방법론 을 통해 극복해 보고자 한다.

☐ 기존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한계점을 간략하게 지적한다. 이 때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납득이 어려운 이유는 오히려 글의 설득력을 떨어트리니 주의하자. 이어서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면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본론이다. 본론은 여러 개의 소주제로 이루어 지며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논의, 이론의 개념, 실태분 석, 연구 방법 및 결과, 개선 방안 등이 그것이다. 각 연구 방법론의 내용 에 맞게 구성하도록 한다. 다만, 각 주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근거가 논리적인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론 예문]

이중주어 구문에 관한 논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통사론적 관점이나 정 보구조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중략) 어느 것이 진짜 주어인지에 대 한 논의가 주로 다루어졌다(임동훈 1997, 최일순 1998, 한정한 2000, 주 소원 2008. 유현경 2018. 이영제 2018 등 다수).

** 본론의 시작에 주로 기존의 논의를 배치한다. 연구에 사용된 개념 을 설명하거나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논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서론에 서 간략하게 언급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는 일을 본론이 한다. 여 기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tip!

본론에서 인용과 출처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를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이곳에서 글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표5〉 '유형(1)'의 억양 곡선 분포

문장	유형	화제	초점
토끼가 꾀가 많아	1	1	9
학생이 다섯 명이 왔어	1	2	8

'유형(1)'에서 초점 억양 곡선이 다수로 나타난 구문은 '토끼가 꾀가 많아'와 '학생이 다섯 명이 왔어'이다. (중략) 따라서 우리는 '이/가'에 초점의 표지를 나타내는 기능, 화제의 표지를 나타내는 기능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나용이 길거나 복잡할 경우 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면 좋다. 시각적인 자료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단, 표나 그래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살펴보자. 결론은 보고서 전체에 대한 요약·정리, 최종 결론을 제시, 본인의 생각,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된다. 작성된 글은 퇴고의 과정을 거친 후 제출하도록 하자.

[결론 예문]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이중 주어 구문의 음성 분석을 통해 첫 번째 명사 구와 결합하는 조사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이중 주어 구문의 논의에 대한 두 축인 통사적 관점과 정보구조적 관점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중략)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략)화제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논문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 절차를 함께 제시하면 연구 각 진행 과정의 당위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2) 형식을 갖춘 실험 보고서 작성하기

실험 보고서는 실험과 관찰의 결과를 도출하여 보고하는 글이다. 주로 자연·공학계열 학생들의 과제 형식이다. 다른 보고서에 비해 객관적인 성격을 지닌다.

구성은 서론, 이론적 배경, 실험 재료 및 방법, 실험 결과, 요약 및 결론, 고찰, 참고문헌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서론에서는 주요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실험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疫瘧, epidemiology)은-'와 같이 괄호를 사용해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병기한다. 이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보고서에서 필요한 정보의 범위나 조건 등을 확인하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론적 배경을 작성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이론적 배경 예문]

식생활이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영양물을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식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유병률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는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두의 항산화물질인 이소플라본과 녹차의 향산화물질인 카테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화근 이슈를 소개하면서 해당 실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 스럽게 주제와 키워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실험의 목적 과 관련이 있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서론의 역할을 잘해내고 있다. 주요 키워드를 통해 실험군, 대조군, 조건 설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험 재료 및 방법에서는 특히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 기술을 요구한다. 많은 정보가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글쓰기 전에 수집한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발적이고 병렬화된 정보는 의미를 창출하지 못한다. 스스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신뢰할만한 가치 있는 자료로 선별하는, 일종의 자료의 재구성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실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부족한 점은 수정 및 보완한다. 다음 연구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 제로 주의하도록 하자.

[실험 재료 및 방법 예문]

- 3. 실험 재료 및 방법
 - (1) 청국장 제조 및 녹차 청국장 제조: 2020.10.19.(월)
 - 1) 실험재료와 시약, 기기 및 기구 -기기 및 기구: Autoclave, incubator, 시약 스푼,
 - 자동천칭저울, 기름종이

2) 실험방법









실험 재료 및 방법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성이다. 실험 시 현장의 상황,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등을 함께 기록하여 정보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험 방법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이는 실험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고찰이다. 고찰은 실험 원리 및 방법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은 실험보고서에서 유일 하게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곳이다.

실험의 핵심 내용과 결과, 오차가 나타났던 이유 등을 설명하고 해석-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재실험 시 보완점 제시, 결과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발전 사항도 함께 첨가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실험 고찰 예문]

실험을 하면서 청국장을 만들지 말고 대두를 말려 쥐에게 식이를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의문을 가졌다. 이에 대해 찾아보니 (중략)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말린 대두보다는 청국장으로 먹는 것이 더 유리하여 청국장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실험에서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등의 과정을 고찰에서 작성한다. 실험보고서는 가설, 과정, 결과 등을 오류나 누락 없이 명백하게 기술해야 한다.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 사실 기록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그것은 보고서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고찰을 통해 실험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



'연구자의 주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힘들었다 거나 해당 강의에 대한 소견을 남기는 부분이 아니다. 보고서 작성자의 주관은 실험 과정과 결과에 한해 이 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종합과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알아두기

실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와 달리 세분화해서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음 과정을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 실험 보고서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실험 보고서는 실험 결과의 종합적 정리-분석-결론 도출의 체계적 과정을 보여줘야 하므로 목적, 이론, 방법, 결과, 결론 및고찰 등 다양한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 1. 서론
- 주요 키워드, 실험 주제 및 목적 등 설명
- 2. 이론적 배경
- 사용되는 과학적인 원리나 식, 개념 등 제시
- 3. 실험 재료 및 방법
- 실험 재료, 성분, 원료, 기구명, 상세한 실험 진행 과정 및 방법(과정은 사진 촬영) 등 작성
- 4. 실험 결과
- 실험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결과 등 제시
- 5. 요약 및 결론
- 최종 연구결과 정리
- 실험의 목적 및 전반적인 내용 간략하게 제시
- 6. 고찰
- 기존 연구와 비교해 타당성 입증
-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작성
- 7. 참고 문헌

●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검토할 사항

실험 보고서 평가는 실험 수행 태도와 실험 보고서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 과정에 고려할 내용들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 실험의 목적, 과정, 결과, 결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목**
- ° 이 실험을 왜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목적
- ° 개념과 원리, 법칙 등 실험과 관련된 지식을 적절하게 기술
- [°] 실험과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다양하게 찾고 이를 활용
- °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 방식에 맞게 지키기
- ° 실험에서 사용한 **내용과 방법**을 흐름에 맞게 기술
- ° 그림 및 표를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기술
- [°]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근거자료**(논문 또는 전공지식)를 사용하여 기술
- °실험이 어떤 분야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지 기술
- °실험 결과로 인해 **확인한** 부분과 **제한점**을 반드시 기술
- * 분석한 결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 기술

3) 쉽게 작성하는 감상문

감상문은 일상에서 경험한 것이나 책을 읽고 얻게 된 정보 등에 대한 자신의 느낌, 생각 등을 표현한 글이다. 일기나 편지글, 기행문, 수필, 독 후감상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책에서는 과제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독후감상문 작성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후감상문은 논리적인 글쓰기보다는 감상을 중심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개인의 감상을 얼마나 일관되게 쓰느냐에 집중하자.

그럼에도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원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상뿐만 아니라 인용에 필요한 문구를 체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각 항목별로 필요사항을 기술하면 좋다.

독후감상문 작성 전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첨언할 것이 있다. 제목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이다. 보통 '『책제목』을(를) 읽고'의 형식을 많이 사용한다. 잘못된 것은 아니나 효율성을 생각하면 좋지 않다. 제목은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 본문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거나 감상 포인트를 제목으로 쓰면 글의 주제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

서론에서는 흥미 유발에 집중하자. 정서적인 접근도 좋다. 일상과 텍스트의 접점을 만들면서 시작하면 편안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텍스트를 해석할지 정도를 기술하는 것이 좋다.

[서론 예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중략) 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한 사회에 속한 사람은 비슷한 가치를 배우고 문화를 공유하는데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또, 역사란 무엇이기에 누군가가 나중에 나올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보았다고할 때에 다른 누군가는 위장 평화를 말하는 걸까. 이 질문의 끝에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이 있다.

'과제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는 식의 접근은 좋지 않다. 자유로운 생각과 감상을 저해하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원텍스트와나의 일상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텍스트를 서론부터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용이하다.

본론에서는 간략한 줄거리 및 예고한 내용을 전개한다. 주제를 세분화하여 각 문단별로 감상을 전개한다. 독후감상문이라고 해서 감정적 감상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장인물이나 사건, 플롯 등 기준을 세워 자신의 시각을 분명히 하자. 원텍스트를 활용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주면서 글을 전개하면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각 문단별로 소주제를 정해서 글을 작성하되 긴밀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제로 수렴하는지를 체크하도록 한다.

[본론 예문]

내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제15대 광해군 일기"이다. (중략) 그에 대한 평가는 당시의 기록이나 현재에도 거의 일치한다. 민규동 감독의 영화 〈간신〉(2015)이 이를 증명한다. 2015년의 대한민국에서 읽는 연산군도 실록과 같다. 광적이었고 폭군이었다. 재위기간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다. 권력을 독점하였고 쓴 소리를 하는 사람을 멀리 하여 간신이 자신의 곁을 지키게 했다.

(**) 반드시 원텍스트에 갇혀서 글을 쓸 필요는 없다. 독후감상문의 주어는 원텍스트가 아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생각과 감상, 해석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해석과 감상에 도움을 준 다른 텍스트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좋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글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줄거리를 지나치게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본문을 서술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분량을 채우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결론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소감 등을 제시한다. 본론에서 말하지 못한 작가의 시각에 대한 해석, 원텍스트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

주제를 마무리 짓는 부분이니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마무리를 잘하면 글의 완성도가 높아지지만 반대의 경우는 글의 무게 중심이 흩어진다. 주의하자.

[결론 예문]

지은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어긋난 추측과 판단이 현재까지 이어진 데에 대해서 씁쓸하게 여긴 모양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다듬어진 시선을 찾길 바라고. (중략)

역사서가 할 일이 이쯤에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사건을 읽고 판단한 것이니 당신이 이 글을 읽고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거나 또 다른 답을 찾으라고.

다 지은이의 말을 가져와서 결론의 도입으로 삼았다. 지은이의 말은 줄 거리만 생각하면 굳이 더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원텍스트 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를 결론에 배치함으로써 자 신의 해석과 지은이의 시선이 만난 것을 보여주었다. 주제를 다시 상기 시키는 요소로 활용한 것이다. 원문을 열심히 읽어내고자 한 태도를 잘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알아두기

다음은 독후감상문의 개요이다. 이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하면 유용할 것이다.

● 독후감상문 개요

- 1. 서론
- 작가 및 작품 소개, 책을 읽게 된 배경, 본인의 관점 등 설명
- 2. 본론
- 줄거리 및 주요 내용
- 발췌 및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표현
- 3. 결론
- 전체 느낌, 책을 통해 변화한 가치관 등 기술
- 마무리



저자와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주눅 들지 말아야한다.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하면 된다.

4. 보고서 작성 시, 꼭 챙길 list

❤️ 보고서 작성할 때 챙겨야 할 항목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을 확인하자.

▎ 표지 만들기 ㅣ

보고서가 여러 장일 경우 반드시 표지 제시

목차 달기

보고서 전체 내용이 짧을지라도 웬만하면 목차 작성하고 5장 이상이면 목 차 작성 권장

표지와 목차는 보고서가 풀어갈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 제목 │

연구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므로 교수님이 주신 연구주제를 그 대로 사용하지 말고 주제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

│ 제목번호 제대로 달기 │

제시한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1-가-1)-가)-(1)-(가) 순으로 순서대로 제목 번호를 기재

│ 쪽수 매기기 │

보고서가 여러 장일 경우 페이지 쪽수는 반드시 기재

| 의견 작성하기 |

대부분의 보고서는 요구하는 형식대로 작성한 후, 자신의 의견이나 느낀 점 등 내용과 연관된 견해를 작성

오타 확인하기 |

아무리 잘 작성한 보고서라도 오타가 있으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 마지막 오타까지 확인 필수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점검하기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장 체계나 문맥 흐름이 적절한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등 전반적인 점검 필수

5.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학생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로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Q. 보고서 분량은 몇 장 정도가 적절하나요?

해당 강의에서 요구되는 분량이 없을 경우, 보편적으로 소감문 3쪽이내, 실험보고서 6쪽 내외가 적절합니다. 보고서 분량이 제시되었다면 이를 반드시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Q.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1분 늦으면 지각 제출인가요? 교수님이 제시한 일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O. 표절 검사를 실제로 하나요?

우리 대학교의 경우, 표절 검사 기능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보통 6~8 개 어절 이상이 일치하면 표절로 판명되어 표절률이 높아집니다. 이를 유의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합시다.

Q. 실험 결과가 잘못 나오면 잘못 나왔다고 쓰면 되나요?

실험 결과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 대로 작성을 권장합니다. 만약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서 잘못 나왔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타 당한 이유를 기술하는 것이 옳습니다.

Q. 참고문헌이 되는 논문 자료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나요?

KCI, NDS, RISS 등 우리 대학 동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동되어 검색되기 때문에 동산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합시다.

Q.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쓰면 좋게 보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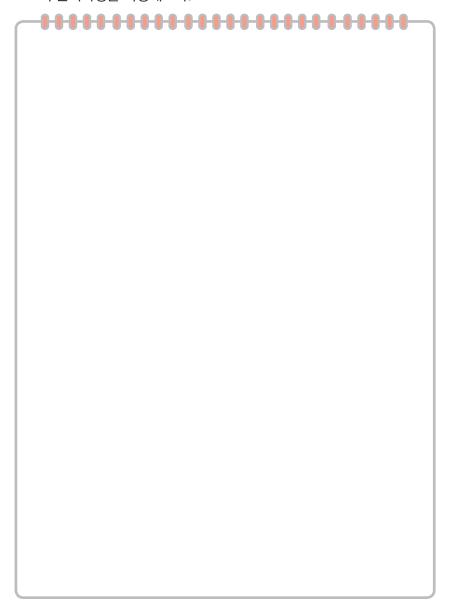
인용 표기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이거나 주관적 표현을 삼가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속한 학과에서 언급되는 논문을 참고하여 관습적 표현을 익혀봅시다.

O. 인용표기 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인용 표기 원칙에 따라 통일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17페이지의 참고문헌 작성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 연습문제

보고서 준비과정을 작성해보자.



교수학습개발센터 표현력클리닉 프로그램

표현력클리닉에서는 학생들의 한국어 및 영어 글쓰기·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합니다.

일대일 글쓰기 첨삭지도

국어와 영어의 일대일 맞춤형 글쓰기 첨삭을 온 · 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대일 한국어 글쓰기 컨설팅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및 문제를 전문가와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는 프로그램

일대일 한국어 스피치 컨설팅

전문가와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별 스피치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일대일 영어 컨설팅

개별 컨설팅을 통해 본인의 실력 점검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토익 시험 준비부터 영어 발표까지 다양한 영어 학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컨설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일대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일취월장 글쓰기 특강

글쓰기에 관한 관심 고양 및 완성도 높은 글쓰기를 장려하고자 교내 · 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청산유수 말하기 특강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및 전문성을 부각하고자 교내·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영어 글쓰기/회화 워크숍

외국어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면으로 운영하는 워크숍

영어 온라인 특강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상시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영어학습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표현력 길잡이 교육

대학 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 및 영어 글쓰기·말하기 방법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하는 온라인 특강

표현력 무한도전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계발하고 우수 사례를 대외로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계열별 보고사 작생 프로그램

계열별로 보고서 쓰기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보고서 쓰기의 향상을 길러주기 위해 팀별 워크숍과 개별 컨설팅 두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학과별 의사오통 동아리 교육

학과별 의사소통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표현력 챌린지 공모전

기초 학습역량과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해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한국어 글쓰기·말하기, 영어 글쓰기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표현력 책까 제공

효과적인 한국어 및 영어 글쓰기 · 말하기 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공

글쓰기 가이드북 1

완성도 높은 보고서 작성하기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인 계명대학교 총장 신일희

기 획 사용진(교수학습개발센터장)

검 수 임태성(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집 필 진 박찬미, 고도연, 김철균(표현력 클리닉 튜터)

편 집 이민지(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원)

발 행 처 계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바우어 신관 3층

문 의 kctl@kmu.ac.kr / 053) 580-8884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저작권은 계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있습니다.

[비매품]





글쓰기 가이드북 1

완성도 높은 보고서 작성하기





계명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KEIMYUNG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바우어 신관 3층 TEL (053) 580-6492~3 FAX (053) 715-2022 E-mail kctl@kmu.ac.kr